



사람이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청한다는 사실이 어색합니다.
속속들이 내 잘못을 밝히기가 조심스럽고 죄를 털어놓는 것도 불편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다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에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를 드러내는 교회가 화해의 표지이며 도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기적인 삶과의 단절을 수없이 선언합니다. 삶의 과정을 세세히 살피며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각오합니다. 그럼에도 거듭 죄를 짓습니다.

고해성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헤아리신 그분의 축복이기에 교회 생명의 원천입니다. 수없이 다짐하고서도 잊어버리고 때마다 맹세하고서도 또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음을 가없이 여기시어 세워주신 '유일한 대책'입니다. 허하고 약한 인간을 위한 그분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고해소에서 죄를 사해주시는 분은 인간 사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진리는 사제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진리는 사제가 느끼는 가장 탁월한 신비이며 매 성사에서 거듭 체험된다는 사실을 고백해 드립니다. 사제는 그분의 용서가 베풀어지는 현장에서 사용될 뿐입니다. '듣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신비'로 사로 잡아 오직 도구로만 쓰입니다. 진실된 고해를 하신 신앙인이라면 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불편할 이유도 없고 어색할 까닭도 없습니다. 고해소에는 그분께서 계십니다. 어서 그분과 만나도록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의인의 보루

(시편 11,1-7)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어느 분이 시편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11, 1 주님께 나 피신하는데
너희는 어찌 나에게 말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 2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메겨
마음 바른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 3 바탕까지 허물어지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 4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궁전에 계시고
주님의 옥좌는 하늘에 있어
그분 눈은 살피시고
그분 눈동자는 사람들을 가려내신다.
- 5 주님께서는 의인도 악인도 가려내시고
그분의 열은 폭행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 6 그분께서 악인들 위에 불과 유향의 비를 그물처럼 내리시어
타는 듯한 바람이 그들 잔의 뭍이 되리라.
- 7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뵈게 되리라.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시편 말씀을 듣고 나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인대칭(미소·인사·대화·친절)의 삶[의인의 삶]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인 동시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면 이기심과 관대함



사이, 정직함과 눈속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하느님으로부터도 듣고 싶어 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시험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운다.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 늘 새롭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며 그분의 사랑에 항구히 머문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사람이며 존귀하다. 또한 함께 하는 이에게 선함의 방식으로 인정받고자 한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내가 타인에게 보내는 미소와 인사하기, 따스한 대화와 칭찬으로 매 순간 이루어진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아래 글은 전임 베네딕토 교황님의 글로서 다른 이를 바라보는 존엄성을 맘에 새겨본다.

“내가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향해 보낸 눈길이 나의 존엄성을 결정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하나의 사물로 환원하려 할 때, 동시에 나에게 달려드는 내가 바라보는 방식의 결과들(곧 나 자신도 이용당하고 파괴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사물이다)을 받아 들어

야만 한다. (중략)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이 나의 인간성을 결정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의 사물로 취급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내가 그와 나의 존엄성, 그와 나의 존재가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망각했을 때이다. 다른 사람은 내 존엄성의 보호자이다.”

(베네딕토 16세 교황, 1987)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며 유일무이한 존엄성의 품격을 드러내며 하느님 보시기에 선하고 존귀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자.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96장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사람은 복음입니다 |

- 사림동본당 지역분과장 김태자(레지나) -

사림동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한 사림동본당은 지난 2015년 4월 12일 하느님 자비주일에 첫 미사를 드리고, 5월 30일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반송, 사과공동, 명서동 세 개 본당에서 분가하여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9개 구역, 18개 반을 편성하여 소공동체장과 구역장을 정하였습니다. 스스로 “제가 저희구역을 맡아 보겠습니다.” 하고 앞장서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구역장 월례회에도 대체로 전원 출석하여 사림동 공동체의 기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봉림구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봉림구역은 봉림산 아래 아파트단지가 생기면서 새롭게 형성된 구역입니다. 구역 내 쉬는 교우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에 다니던 본당으로 다시 나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본당이 신설된 것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던 쉬는 교우들을 다시 주님의 집으로 초대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조을연 안나 구역장님은 본당 사무실에서 교우들 명단과 쉬는 교우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봉림구역원들은 쉬는 교우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가

정을 방문하여 마음으로 다가가 권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많은 분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었고, 소공동체 모임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과 일치를 이루셨듯이 봉림구역도 다 같이 만찬을 나누며 일치를 도모하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삼겹살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 구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먼저 배려하여 참석하도록 준비하고, 소공동체 구성원들은 각자 손수 만든 음식을 마련해와 맛있는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첫돌이 지난 공동체이지만 “사람은 복음이다”라는 본당 신부님의 사목지침에 따라 소공동체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협력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보람차고 활기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부님과 구역장들’